

광주시, ‘선 넘는 여행’으로 ‘전남 상생 관광’ 시동

광주·전남 잇는 여행 콘텐츠 선배 MZ 릴스 챌린지·1박2일 팸투어 야구 특화·죽녹원 연계 등 눈길 “시민 참여형…관광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잇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 ‘선 넘는 여행’을 선보이는 등 지역 간 상생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중심의 흥

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주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코스를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해 관광 홍보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선 넘는 여행’은 광주시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첫 영상은 광주댄스팀 ‘빛고을댄서스’의 리더 오천이 출연하는 예고편으로 시작해 4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일 공개한 1편 ‘감성여행 MZ투어:

열정 광주 VS 힐링 담양’은 MZ세대 대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와 담양을 여행한 뒤 이를 릴스 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시민참여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2편 ‘세대공감-손자투어’ △3편 ‘여름휴가는 탄소저감여행’ △4편 모두의 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MZ세대 인플루언서 및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

으로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한다. 7월 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총 10명을 초청, 광주 도심에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과 담양 죽녹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 전남 인접 사·군과 산업·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선 넘는 여행’ 시리즈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방문객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광주 관광의 지

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선 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문화·산업·환경 등 다방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팸투어를 통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10월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

접근성 개선·지원기간 확대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0월까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배달대행사업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jmild425@gjep.or.kr)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여름철 적조 피해 예방 299억 지원

감시망 확대 등 대응 체계 확립

전남도는 올여름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299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2025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어 올여름 적조 피해 제로화를 위한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해양환경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적조 발생 시기와 확산 범위가 예년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는 7월 중순부터 나타날 수 있고 장마전선, 태풍 발생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생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감시망 확대, 방제 장비 사전점검, 기관 간 협력체계 정비 등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올해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

를 강화하고 있다.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적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했다.

적조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여수 남면 화태 해역에서 민·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 속에서 적조 발생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도 주도의 대응체계를 통해 감시부터 방제, 복구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마을 공동빨래방 4곳 운영

고향사랑기금 통해 조성 하반기까지 16곳으로 확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한 마을 공동빨래방 4곳을 운영 중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완도 청산면을 시작으로 여수 남면, 강진 성전면, 함평을 등 4곳에서 마을 공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완도 청산면 청산국민체육센터에서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 현판식을 열었다.

마을 공동빨래방은 도가 1500만원, 시군이 1500만원을 부담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 지원해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청산면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영란(75)씨는 “늙어서 겨울 이불 빨래는 엄두도 못 냈는데 빨래방을 만들어줘 고맙다”는 내용의 손 편지를 전달했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모두 16곳에 마을 공동빨래방을 열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주한 EU 대사단 간담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0일 목포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 EU 대사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 선포

‘해상풍력 산업박람회’ 성료 발전사·공급망사 협약 등 성과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전력

전라남도는 지난 18~19일 열린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상담 등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전남풍력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8개 시군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전남 해상풍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

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최해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을 선포했으며, 연관 기업과의 협약 등 성과 또한 풍성했다.

1일 차에는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전남도 동부권 해상풍력 13GW 비전 발표 및 지역 공급망 우대방안과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과 공급망 참여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2일 차에 △여수, 고흥 중심으로 공공주도 단지개발 계획 발표 △전남 소재 기자재업체 홍보 및 납품 계약 매칭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명운산업개발, 유탑건설, 케이원드파워, 바다에너지, 퍼시피코, COP, 레노바, 한화오션 등 유수의 발전사와 지역 공급망 사가 8건의 MOU를 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았다. 총 150여 건의 기자재업체-발전사 간 매칭 상담이 이뤄져 행사장 열기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개막식에서 “전남도는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전남이 그 역할을 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도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연관산업 육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산림연구원에 ‘목재누리센터’ 건립

130억원 투입 2027년 준공 친환경 목재 건축물·체험교육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숲 관광과 힐링 명소인 연구원에 목재문화·체험교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목재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재누리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65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산 목재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목구조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연면적 약 2천100㎡ 규모로

△국내 최초 목조 온실 △세계 목공예 전시공간 △숲속도서관 북카페 △어린이 목재 실내놀이터 △산림교육실 △육상전망대 등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남 지역 대표 난대수종인 편백과 삼나무가 벌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 수종을 적극 활용한 공공 목조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산 목재 활용을 통해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는 물론 목재의 우수한 탄소저

장 기능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도민의 목재사용 인식을 높이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개최된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이 설계파트너로 선정돼 목재누리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지난해 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를 준공했다. 오는 2026년 명품숲 조성사업과 2027년에 목재누리센터완공을 통해 도민 맞춤형 원스톱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